

편집 및 발행인 : 조정희 원장 · 발행처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
총괄 : 김동환 · 감수 : 이연경 · 전화번호 : 051-797-4913 · E-mail : kdong@kmi.re.kr

Contents

▶ 아세안 물류시장 동향

- 태국, 북동부 지역 개발 및 경제특구 조성 추진

▶ 유럽 물류시장 동향

- EU, 그림자 선대 규제 강화

▶ 서아시아 물류시장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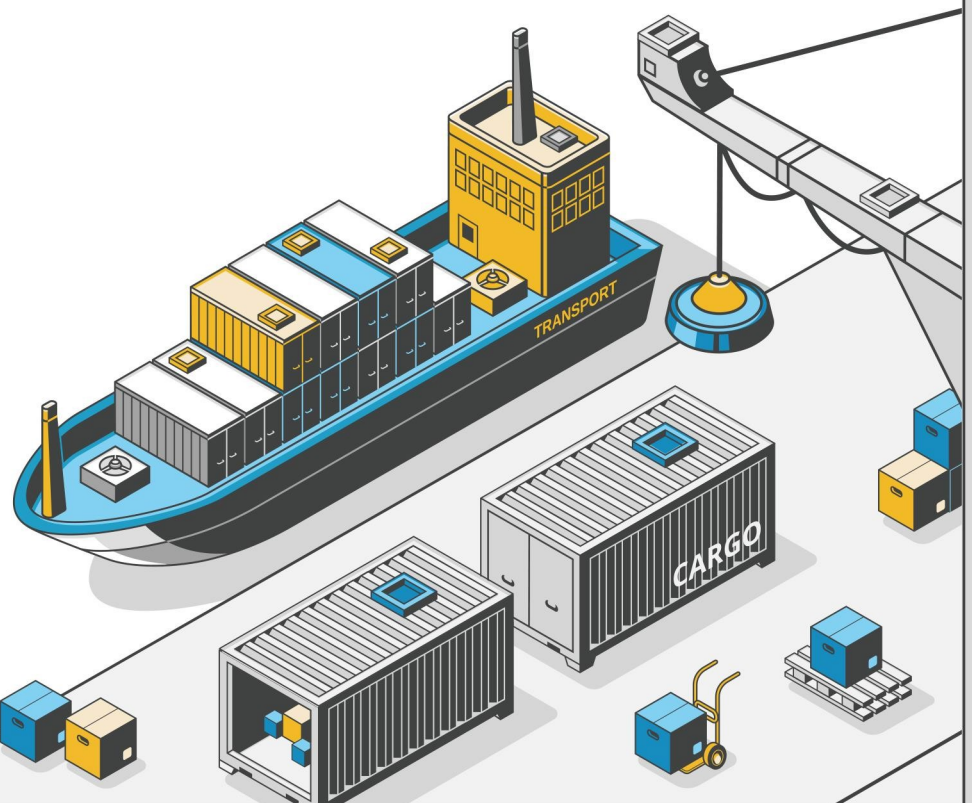
- 이란 반다르아바스 항만 폭발 사고 ... 중동 해상 공급망 불확실성 우려

▶ 공지사항

- 『국제물류 정보포탈』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서비스 안내

▶ 미주·중남미 물류시장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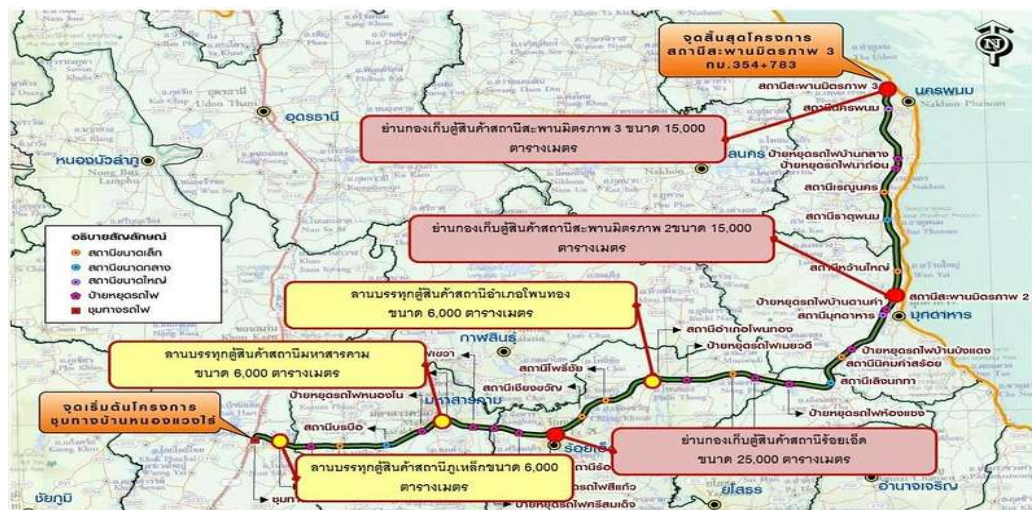
- 美 서안 항만 물동량 급감 ... 동안까지 확산 우려



태국, 북동부 지역 개발 및 경제특구 조성 추진

- ▶ 태국 정부가 북동부 지역의 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新 경제개발구역 조성 방안을 적극 검토 중임
 - 북동부 지역 내 새로운 경제개발구역 조성 계획은 '25년 4월 28~29일 태국 나콘파놈에서 개최된 내각 회의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됨
 - 정부는 해당 계획을 통해 북동부 및 북부 지역 내 10개 내외의 경제개발구역 조성 방안을 고려하고 있음
 - 파통탄 시나와트라(Paetongtarn Shinawatra) 태국 총리는 이번 계획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신규 균형발전 정책으로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음
- ▶ 특히 정부는 북동부 지역 경제개발구역 개발 추진을 통한 교통 인프라 확충 및 물류, 관광 등 다양한 산업 간 연계 강화를 기대되고 있음
 - 태국 정부는 현재 북동부 지역 내 교통 인프라 확충 및 발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해당 지역 내 경제특구 조성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철도의 경우 '22년부터 북동부 내 주요 3개 주인 반파이, 무껀한, 사곤나콘을 연결하는 355km 규모의 복선 철도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28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음
 - 해당 노선은 연간 화물 70만 톤, 승객 380만 명을 수송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항공 또한 나콘파놈과 사곤나콘 공항의 항공편 증대 계획을 검토하고 있음
 - 이러한 교통 인프라 확충은 북동부 내 물류 효율성 확대뿐 아니라 베트남, 라오스 등 접경 국가와의 교역 활성화까지 기대할 수 있음

태국 북동부 지역 내 복선 철도 루트



자료: <https://futuresoutheastasia.com> (검색일: 2025.04.28.)

- 북동부 지역 개발은 단순 지역 균형 개발을 넘어 메콩강을 통한 국경 교역 활성화 까지 기대할 수 있음
 - 북동부 지역은 메콩강과 인접해 라오스, 베트남 등과 육상 교역 및 물류 연결이 가능한 전략적 위치를 보유한 지역임
 - 따라서 해당 지역 내 경제개발구역이 조성될 경우 인근 국가와의 교역 활성화뿐 아니라 관광객 증가 등 다양한 경제적 효과 창출을 기대할 수 있음
 - 즉 북동부 지역이 내륙 교역 거점 부상 시 태국 전체 공급망 다변화 및 경제 안정성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따라서 우리 기업 또한 태국 북동부 지역 개발 및 메콩강 연계 추이를 면밀히 주시하고, 해당 지역 내 물류 인프라 투자, 농식품 및 소비재 수출시장 확대 전략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란 반다르아바스 항만 폭발 사고 ... 중동 해상 공급망 불확실성 우려

- ▶ 지난 4월 26일 이란 반다르아바스 사히드 라자이 항만에서 대규모 폭발 사고가 발생함
 - 사고가 발생한 항만은 연간 약 8,000만 톤의 화물을 처리하는 이란 최대 컨테이너 항만임
 - 특히 세계 석유 생산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 인근 주요 항만으로 중요도가 매우 높음
 - 항만 내 화학물질 저장 시설에서 폭발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정확한 사고 원인은 조사 중임
 - 이번 사고로 최소 40명이 사망하고, 1,000명 이상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확인되며 추가 피해자 또한 증가할 전망이다
 - 항만 운영은 인프라 손상, 붕괴 등으로 일시 중단됐으며, 항만 인근 도로, 창고 등 또한 큰 피해를 입음
 - 특히 해당 항만은 이란 최대 항만이므로 항만 기능의 일시적 마비는 이란 내 수출입 물류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이란 최대 항만 반다르아바스 항만 내 대규모 폭발 사고 발생



자료: 동아일보 (검색일: 2025.04.28.)

자료: <https://www.indiatoday.in> (검색일: 2025.04.28.)

- ▶ 이번 반다르아바스 항만 사고는 전반적인 항만 안전 관리 체계의 취약성을 부각시킴
 - 사고 원인이 위험물 저장 및 취급 관리 소홀로 추정되면서, 항만 내 위험물 관리 체계의 전반적인 점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중동 주요 항만은 에너지 자원, 화학물질 등 고위험 화물을 다루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안전 관리 미흡 시 본 사고와 같이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항만별 위험물 구역 설정, 통제 기준 강화, 긴급 대응 매뉴얼 개편 등 안전 관리 전반에 대한 구조적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 반다르아바스 항만 사고로 중동 내 뿐만 아니라 글로벌 해상 공급망에도 일시적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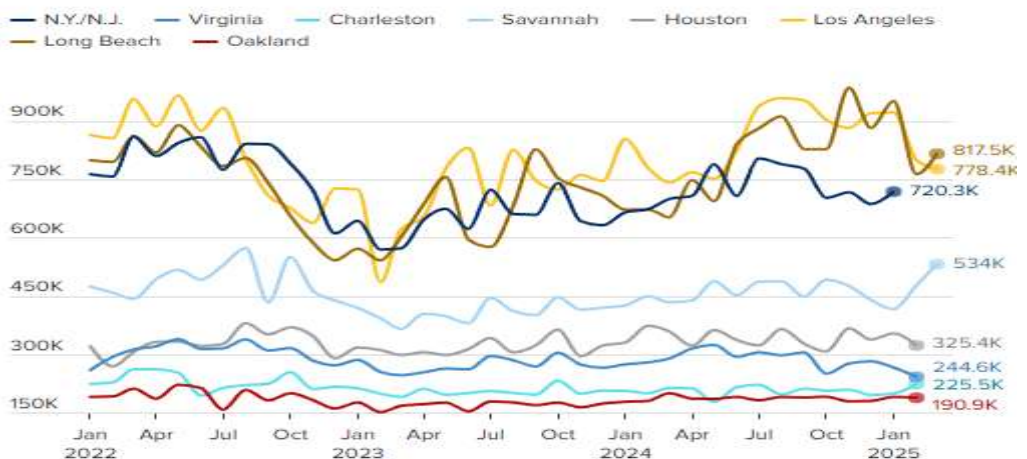
- 반다르아바스 항만은 페르시아만 일대 중계 물류 거점으로 기능해 왔기 때문에 항만 운영의 중단 장기화 및 운영 효율성이 저하될 경우 화물 병목 현상 발생 가능성이 높음
- 또한 에너지 자원(석유, 가스) 수출 경로, 소비재 및 농산물 수입 경로에 단기적 공급망 차질로 국제 유가 및 주요 품목의 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이번 사고는 해상 물류 공급망의 단일 경로 의존 리스크를 확인할 수 있는 사례로, 향후 글로벌 물류 기업이 중동권 물류 다변화 전략을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됨

美 서안 항만 물동량 급감...동안까지 확산 우려

- ▶ 트럼프 중국 관세 인상과 美 화주의 재고 확보로 4월 말 아시아에서 출발해 美 LA·LB항으로 향하는 태평양 항로의 컨테이너 물동량 급감
 - 선박 추적 시스템 Port Optimizer는 5월 첫째 주, 중국·아시아에서 출발해 美 LA·LB항으로 운항하는 컨테이너선이 전주 대비 29%, 전년 동기 대비 44% 감소했다고 발표함
 - 또한 지난 4월 넷째 주, 美 LA·LB항에 총 12척의 컨테이너선이 입항했는데 이는 전 주 입항 수인 22척에 비해 약 50% 이상 감소했으며, 컨테이너 물동량도 120.6만 TEU에서 62.6만TEU로 절반 가까이 줄어듦
 - 이러한 해상물동량의 감소는 항만과 연결된 내륙 운송에도 여파를 미쳤는데, DAT Freight & Analytics는 2주 전에 비해 약 70만 단위의 트럭 화물이 증발했다고 발표함
 - 이러한 원인으로는 트럼프 정부의 중국 관세 인상에 따라 실제 중국산 수입 축소도 있으나 관세 인상 전 올해 첫 3개월 동안 美 화주가 미리 재고를 확보한 결과이기도 함
 - 이에 美 LA·LB항은 지난 1~3월 약 250만 TEU의 수입 화물을 처리했으며, 이는 작년 동기 대비 약 14% 증가한 수준임
- ▶ 특히, LA·LB항 포함 오클랜드항, 시애틀항 등 美 서안을 중심으로 글로벌 선사의 운항 취소율과 임시결항이 급증했으나, 5월 이후로는 동안으로도 확대 예상
 - LA항의 경우, 수출입 물동량이 지난 1월 924.2만 TEU였으나 3월 817.5만 TEU로 약 11.5% 감소했으며, LB항은 952.7만 TEU에서 778.4만 TEU로 약 18.3% 줄어듦

'22년 1월~'25년 3월 간 美 주요 항만 수출입 물동량(TE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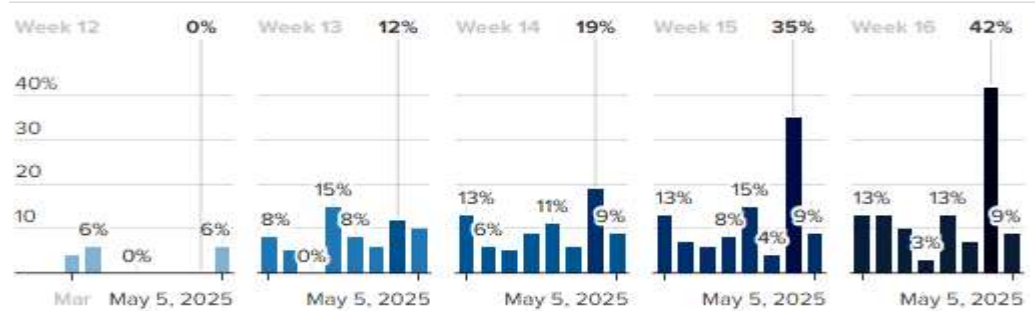
Import and export volumes processed at U.S. ports
Total monthly TEUs | Jan. 2022–March 2025



자료: 현지 항만 당국의 공개 보고, CNBC (검색일: 2025.04.25.)

- '25년 12주 차에는 5월 초 태평양을 횡단하는 선박의 임시결항은 0%에 불과했으나 16주 차에는 임시결항이 42%에 육박함
- 글로벌 해운선사의 아시아~북미 태평양 항로 운항 취소율의 경우, 제미니(Gemini) 얼라이언스가 24.4%로 가장 높았으며, 오션 얼라이언스가 18%로 그 뒤를 이음
- 아시아~美 서안 항로에서 처음 발생한 운항 취소는 점차 확산해, 올 5월 이후로는 동안 항로에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함
- Sea-Intelligence는 중국~美 서안의 화물 수요는 5월 첫째 주 -28%, 동안은 -42% 급감할 것으로 예측함

'25년 5월 초 아시아~美 정기 운항 임시결항률 증가세



자료: Sea-Intelligence, CNBC (검색일: 2025.04.25.)

- ▶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 무역 협상을 타결할 경우, 중국으로부터의 화물 수요가 급증하고 해운 운임이 급등할 가능성 높아 우리 기업의 선제 대응 필요
 - 지난 4월 22일 美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는 가까운 시기에 美 中 관계에 긴장 완화가 있을 것이며, 美 中 무역전쟁이 장기화되지 않을 것으로 발언함
 - 이에 현재 중국산 수입이 중단되고 동남아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향후 美 행정부가 중국과 무역 협상을 타결할 경우, 중국의 화물 수요와 해운 운임이 급등할 것으로 예상됨
 - 우리 기업은 운임 급등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복 확보 전략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사전 물류 계약 체결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예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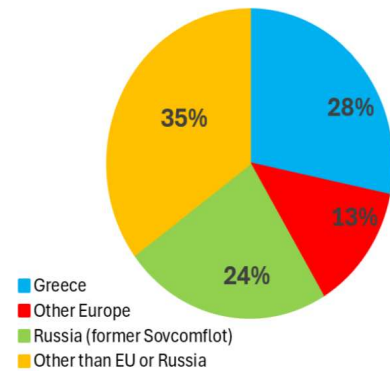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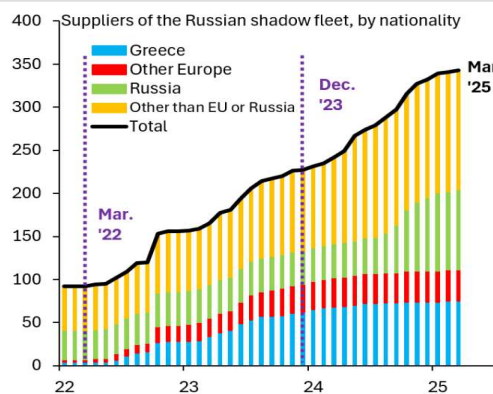
참고자료: <https://www.cnn.com>, www.wsj.com (검색일: 2025.04.25.)

EU, 그림자 선대 규제 강화

- EU의 그림자 선대 제재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36명의 유럽의회 의원들은 그리스 총리에게 러시아와 연계된 단체에 그리스 소유 선박을 판매하지 않도록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함

- 지난 2월 발간된 美 Brookings Institute의 보고서에 따르면, 그림자 선대에 속한 선박의 60%가 서유럽 선주로부터 구입했으며, 특히 가장 큰 단일 공급원인 그리스 선주들은 노후 유조선 매각을 통해 약 40억 달러의 수익을 얻었고 이때 판매한 선박은 그림자 선대에 배치되었을 거로 추정함
- 이에 따라 유럽의회 의원들은 서한을 통해 러시아 - 그리스 간 선박거래가 러시아 석유수출에 부과한 가격 상한선을 우회하는 그림자 선대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러시아산 석유를 포함한 화물 원산지를 은폐하기 위해 증가한 선박 간 환적의 엄격한 규제와 그리스 해운기업들의 러시아산 화석 연료 운송을 금지하는 조치를 강력히 촉구함

그림자 선대 증가 추이 (2022 - 2025)



자료: <https://www.brookings.edu/> (검색일: 2025.04.28)

- 그림자 선대에 대한 EU 제재는 강화되는 추세이며, 일부에서는 제재 강화가 러우 전쟁 종전 협상의 주요 쟁점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음

- 그림자 선대는 대부분 평균 21년 선령의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유조선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조된 데이터를 전송하고 러시아산 화석연료 수송 외 무기밀매, 탈취한 우크라이나산 곡물 밀수출 등 다양한 수송에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EU는 작년 발트해에서 러시아 선박이 해저 케이블을 손상시키는 행위 등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 그림자 선대에 대한 단속 압박을 점차 강화되는 추세임
- EU는 여러 차례의 제재를 통해 그림자 선박 153척을 블랙리스트에 올렸으며 관련 선박들에 대해 모든 EU 항만과 EU 내 서비스 이용을 금지함

- 이에 더해 유럽위원회는 그림자 선대의 유럽 해역 통항 제한을 위해 EU 해역을 통과하는 선박에 대해 연안국에 의무적으로 보험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규정을 최근 지정함
- 금년 4월 발간된 美 Brookings Institute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적극적인 제재 조치가 러시아의 그림자 유조선대 구축 야망을 좌절시키고 있다고 평가하며,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협상의 일환으로 활용될 수 있는 중요한 쟁점으로 인식하고 있음

➤ 한편, 주요 전문가들은 러우전쟁 종식이 그림자 선대 해체에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며 유조선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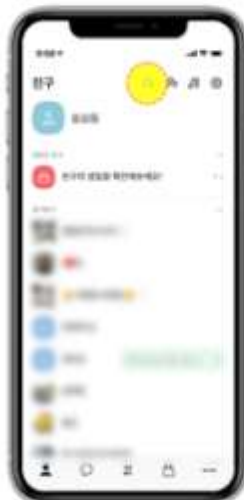
- 유조선 선주사 OM Maritime의 Subhangshu Dutt 이사는 2월 중순 싱가포르에서 열린 Commodity Trading Week Asia에서 러우전쟁이 종식될 경우 그림자 선대는 석유거래를 위한 석유메이저회사들의 심사통과(Oil Major Inspection)가 어려워 대부분 해체될 것이며, 일부 선박들은 운송 목적이 아닌 중개무역 혹은 소규모 정유시설(teapot refineries)로 활용될 것이라 예상함
- 유조선 선주사 Hafnia의 Peter Kolding 부사장 역시 러우전쟁이 종식되면 러시아 석유 무역시장은 기존 주류사업자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며, 제재 무역 프리미엄으로 살아남은 노후화된 유조선은 해체될 것이라 예상함
- Peter Kolding 부사장은 러시아 제재 해체에 따른 국제 석유거래량 증가, 거래패턴 회귀 등으로 전쟁특수에 힘입은 유조선 시장 내 혜택은 사라지겠지만 노후 유조선 해체량 증가로 인해 시장균형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함

『국제물류 정보포탈』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서비스 안내



친구 추가 방법

1. 카카오톡 메인화면
상단 친구 검색



2. 『국제물류 정보포탈』
검색



3. 친구추가 버튼

